

2024-10-28 (2024-42호)

10월 28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강달러와 맞물린 외인 주식 역송금 경계..상단 저항 테스트

서울, 10월2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 모멘텀 확산 정도와 당국 실개입 여부를 주시하며 새로운 빅피겨인 1400원대 진입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75-1400원이다.

달러/원 환율이 4주 연속 가파르게 올라 어느덧 1400원대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거침없는 미국 국제 금리와 달러 상승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엔 위안 약세 변동성까지 가세하면서 달러/원은 1400원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 중이다.

상승 우호적인 대외 여건에다 한국의 3분기 성장률 부진,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과 곤두박질치는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북한 리스크 등 원화 자체적인 약세 재료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주목해야할 해외 경제지표와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 거대 기술기업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있는데 이 결과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9월 PCE물가와 각종 고용지표는 금주 가장 주목되는 지표로 꼽힌다.

아울러 유로존 3분기 성장률과 10월 소비자물가 및 중국 제조업 지표 등도 관심거리다.

한편 한국 수출 피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10월 수출입 잠정치가 발표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 관심도 클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행의 정책회의도 예정돼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 후보의 지지율과 이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 확산 강도가 국내외 금융시장 심리 전반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원화는 꽤나 부정적인 위치에 놓여있는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위안이 들쭉거리면 원화는 지난 주말처럼 약세 압력에 수시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정부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환율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상승 변동성을 키우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딱히 드러나지 않았다는게 시장참가자들의 평가인 점을 감안할 때 당국의 본격적인 대응을 두고 시장은 경계태세를 한껏 올릴 수 있는 시점이긴 하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달러 모멘텀 더 심화될지가 최대 변수인 상황에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최근 시장내 고점 대기매물 정도가 많이 악화된 시점에서 원화는 더욱 달러 반응을 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당국이 필요시 시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눈치보기 자세도 한층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국의 시장 관리가 얼마나 촘촘하게 이뤄질지 주목되는 한 주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이슈

이번 주 트레이더들은 일본의 조기 총선, 미국 고용지표, 영국 예산안, 유로존 성장률, 3분기 기업 실적 등 다양한 경제 이벤트에 대응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 메가캡, 그리고 일자리

'매그니피센트 7' 중 5곳이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29일에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GOOGL.O, 30일 마이크로소프트MSFT.O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META.O, 31일 애플AAPL.O과 아마존AMZN.O이 실적을 발표한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시장 가치로 인해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TSLA.O는 지난 수요일 올해 차량 인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3분기 이익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9월 25만4000개보다 적은 10월에는 12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5일 미국 대선과 7일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가능성 등 두 가지 의미있는 이벤트들이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다.

### ⊙ 日 조기총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불과 몇 주 전 조기 총선을 요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당이 권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자민당은 일요일 선거 후 절대 과반수를 잃고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쳐도 통치하기에 충분한 의석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시바는 1989년 10주 미만으로 재임한 우노 소스케로부터 최단기간 재임 총리라는 타이틀을 빼앗고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연정 파트너를 추가로 영입하면 이시바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과 같은 시장 비우호적인 정책을 보류할 수도 있다.

취약한 경제와 불안정한 시장으로 인해 이미 정책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가 일본은행(BOJ)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본은행은 목요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 동결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영 예산안**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는 수요일에 첫 번째 예산을 발표한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높은 부채, 공공 지출 공약, 소득세 인상 불가 약속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시장은 추가 차입과 자본 이득, 배당금, 상속세 징수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주 10년물 국채 수익률UK10YT=RR은 영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약 18bp 상승했다.

예산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영국 증시는 선거 전 랠리 이후 다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 투자자들은 리브스의 할로윈 전야 예산안이 노동당의 우울한 경제 평가보다 덜 무섭다면 영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 **유로존 성장률·인플레이션**

유로 EUR=EBS는 사상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단 4일만 상승했는데, 이는 국가 부채 위기가 있었던 2012년 5월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이다.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반면, 유럽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급등 위협으로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로를 강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금리 인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강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그다지 안심할 수 없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 ⊙ **유럽 주요 은행 실적**

도이치뱅크와 바클레이즈에 이어 UBSUBSG.S와 HSBCHSBA.L가 유럽 주요 은행 중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한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은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장기적인 수익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산건전성 회복력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 외에도 더 영리한 전략, 더 낮은 비용, 저성장 글로벌 경제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원한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매그니피센트 7' 중 5곳 실적, 美 고용, 그리고 대선 경계

뉴욕, 10월28일 (로이터) -

이번 주부터 빅테크 기업 실적과 고용 보고서 등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되었고, 미국 대선도 다가오면서 미국 증시는 흔들리고 있다.

벤치마크 S&P500지수.SPX는 올해 들어 약 22% 상승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 사상 최고치에서는 내렸다. 하지만 주식은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인 시장 이벤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S&P500 주가수익비율(PER)은 21.8로 3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의 피터 투즈 사장은 "이번 주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이라면서 "시장은 비싸다...시장이 상승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대기업인 '매그니피센트 7' 중 5개 기업이 이번 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GOOGL.O, 마이크로소프트MSFT.O, 페이스북 소유주 메타 플랫폼META.O, 애플AAPL.O, 아마존 AMZN.O이다.

이들 기업은 시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S&P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하며,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은 지수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 ratio)은 35배로, 이들 기업은 전반적으로 S&P500 나머지 종목보다 훨씬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격차는 향후 몇 분기 안에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브라이언트 밴크롱카이트는 "소수의 기업은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있지만, 그러한 자격의 이유가 흔들린다면 해당 주식은 하락할 여지가 많다"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역량에 대한 지출 증가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BofA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AI '하이퍼스케일러'는 올해 자본지출을 40% 늘릴 예정인 반면, 나머지 S&P500기업의 이러한 지출은 올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그니피센트 7 중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TSLA.O는 지난 목요일 일론 머스크 CEO가 내년

자동차 판매가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번 주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중 가장 바쁜 한 주이며, 150개 이상의 S&P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1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강한 경제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다.

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0월 고용 보고서에서 경제가 12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트포드 펀드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인 나네트 아부호프 제이콥슨은 두 번의 큰 허리케인으로 보고서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임금 데이터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상승한다면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라면서 "채권시장은 이미 예상보다 강한 성장,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 가격에 반영된 것만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벤치마크 국채 수익률은 3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했는데, 이는 비둘기파적인 연준이 덜 비둘기파적일 수 있다는 기대와 차기 대통령 재정지출 증가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몇 주 동안 대선 예측 시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대한 베팅이 증가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세 등의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11월5일 대통령 선거와 7일 연준의 다음 통화정책 결정 등 시장에 민감한 이벤트가 이어져 이번 주 투자자들은 더욱 긴장할 수 있다.

시장 변동성 지수.VIX는 지난달 말 15를 하회한 후 최근 19를 기록했다.

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애널리스트들은 목요일 메모에서 "투자자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을 예상해야 한다"며 "11월5일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심리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0월28일 (일)

- ⊙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7:30)
-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 한국은행: 국가 간 지급 개선 프로젝트(Mandala) 최종보고서 발표(16:30)

10월29일 (화)

- ⊙ 기획재정부: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12:00)
-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 한국은행: 2024년 제19차(10.11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_홈페이지 게시(16:00)
- ⊙ 한국은행 국정감사

10월30일 (수)

- ⊙ 통계청: 2024년 8월 인구동향,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 ⊙ 기획재정부: 20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12:00)
- ⊙ 기획재정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 개최(17:00)

10월31일 (목)

- ⊙ 통계청: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08:00)
- ⊙ 기획재정부: 2024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0:00)
- ⊙ 기획재정부: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11:00)
- ⊙ 기획재정부: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참석기업 발대식 개최(12:00)
- ⊙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6:00)
- ⊙ 기획재정부: '24년 11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7:00)
- ⊙ 한국은행: 2024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간의 관계(12:00)

11월1일 (금)

- ⊙ 기획재정부: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10:30)
- ⊙ 기획재정부: 2024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 관세청: 10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박예나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0월2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0월29일	08:30	일본	실업률	9월	2.5%	2.5%
10월29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8월		0.1%
10월29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8월	0.2%	0.3%
10월29일	23:00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10월	99.3	98.7
10월29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9월	7.990M	8.040M
10월30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10월		36.9
10월30일	19:00	유로 존	GDP 속보치 YY	3분기	0.8%	0.6%
10월30일	19:00	유로 존	기업환경지수	10월		-0.76
10월30일	19:00	유로 존	경기체감지수	10월	96.3	96.2
10월30일	19:00	유로 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0월	-12.5	-12.5
10월3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0월25 일 주간		214.8
10월30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	10월	115k	143k
10월30일	21:30	미국	GDP 속보치	3분기	3.0%	3.0%
10월30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9월	0.8%	0.6%
10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9월	1.0%	-3.3%
10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9월	2.3%	3.1%
10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10월	50.1	49.8
10월31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10월		50.0
10월31일	19:00	유로 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10월	1.9%	1.7%
10월31일	19:00	유로 존	CPI NSA	10월		126.63
10월31일	19:00	유로 존	실업률	9월	6.4%	6.4%
10월31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10월		72.821k
10월31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9월	0.3%	0.2%
10월31일	21:30	미국	소비 MM	9월	0.4%	0.2%
10월31일	21:30	미국	PCE 물가지수 MM	9월	0.3%	0.1%
10월3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21 일 주간	233k	227k
10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10월	46.7	46.6

11월1-8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0월		1,254.9B
11월1-8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10월		3.010M
11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 정치 SA	10월		49.0
11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10월	49.5	49.3
11월1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10월	123k	254k
11월1일	21:30	미국	실업률	10월	4.1%	4.1%
11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10월	47.6	47.2
11월1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10월		47.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28일 (월)

- ⊙ 휴장국가: 뉴질랜드

10월30일 (수)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31일까지)
- ⊙ 이자벨 슈나벨 ECB 정책이사, 유로 관련 컨퍼런스 기조연설 (31일 오전 0시)

10월31일 (목)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 ⊙ 휴장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해리스, 트럼프에 우위 유지

워싱턴, 10월23일 (로이터) -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미국 부통령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46% 대 43%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으며, 유권자들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21일 마감된 6일 간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선두는 일주일 전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해 45% 대 42%의 우위를 보인 것과 거의 차이가 없어 11월5일 선거를 불과 2주 남겨두고 경쟁이 이례적으로 타이트하다는 견해를 강화했다.

두 여론조사 모두 해리스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반올림되지 않은 수치를 사용할 경우 2%포인트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 대해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대체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등록 유권자의 약 70%는 생활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60%는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65%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유권자들은 또 경제와 이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함께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느 후보가 더 나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는 46% 대 38%로, 이민은 48% 대 35%로 트럼프가 앞섰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 100일 동안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이슈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민이 1위로 꼽혔다. 약 35%가 이민을 선택했으며, 11%는 소득 불평등을, 10%는 의료와 세금을 꼽아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치적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2% 대 35%로 해리스가 앞서는 등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낙태 정책과 의료 정책에서도 해리스가 앞섰다.

### ◆ 박빙의 레이스

11월5일까지 해리스의 우위가 유지되더라도 해리스가 선거에서 승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를 포함한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견해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지만, 선거인단의 주별 결과가 승자를 결정하며, 7개의 격전지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유권자 투표에서 2%포인트 차로 이겼음에도 트럼프가 선거인단에서 승리한 바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는 격전지인 이들 주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유권자, 특히 민주당원들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를 꺾었을 때보다 올해 선거에 더 열광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여줬다.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등록 유권자의 약 79%(민주당 87%, 공화당 84%)가 대선에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고 답했다. 2020년 10월 23~27일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74%(민주당

74%, 공화당 79%)가 투표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투표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새로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2%포인트였다.

박빙의 승부를 감안할 때, 지지자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들의 노력이 승자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조사국과 퓨 리서치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11월 선거에서 미국 성인의 3분의 2만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는 10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퓨 리서치의 추산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약 3분의 1은 민주당, 3분의 1은 공화당원이며, 나머지는 선호하는 정당이 없거나 제3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는 3,481명의 등록 유권자를 포함, 전국적으로 4,12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약 3,307명이 선거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중 해리스는 48% 대 45%로 트럼프보다 3%포인트 앞섰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분석)-주식시장 벤치마크 고공행진에 외면 당하는 테마 ETF

10월22일 (로이터) -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비디오 게임 등 특정 테마 상장지수펀드(ETF)를 떠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광범위한 주식시장 벤치마크와 연계된 펀드로 물리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이 하락하면 자금 이탈이 둔화될 수 있다.

금융 데이터 및 분석 업체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주식형 ETF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태양 에너지에서 로봇 공학,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는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총 자산이 108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올해 58억 달러의 자본이 유출돼, 2023년 전체 48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이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춘 자산 관리 회사인 테마ETFs의 투자 전략가 테일러 크리스토크위악은 "지금 은 테마 ETF의 겨울"이라고 말했다.

전체시장 지수의 수익률이 올해 테마 펀드에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벤치마크인 S&P 500 .SPX 은 올해 22% 이상 상승했는데, 엔비디아 NVDA.O 와 메타플랫폼 META.O 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종목의 상승에 힘입은 결과다.

S&P 500과 나스닥 100( .NDX)을 추종하는 5대 ETF에는 올해 1,70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지난 목요일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SPY.P )는 ETF 가운데 최초로 자산 6,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시장조사업체 CFRA의 ETF 분석가 아니켓 울랄은 "사람들이 더 이상 테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메가캡이 지배하는 강세장에서는 어떤 테마도 눈에 띄기 어렵다"고 말했다.

#### ◆ 나쁜 타이밍

브라이언 아머 모닝스타 ETF 애널리스트는 테마 투자 자체의 특성도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종종 테마 투자에 있어 시기를 놓치는데, 모닝스타의 연구에 따르면 테마 ETF 투자자들이 5년 동안 수익의 3분의 2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머는 "올바른 테마를 선택하고, 펀드가 그 테마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골랐는지 확인한 다음, 펀드를 매수할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사랑받는 엔비디아에 대한 노출이 큰 일부 AI 테마 ETF도 자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X 로보틱스 & 인공지능 ETF( BOTZ.O )는 지난 12개월 동안 8,9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회사측이 밝혔다. 이 펀드는 포트폴리오의 거의 13%(S&P 500 가중치의 거의 두 배)를 AI 반도체 제조업체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지수와 비슷한 성과(약 39%)를 내는데 그쳤다.

지난 12개월 동안 31개 테마 펀드 중 19개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된 Global X의 테마 부문 책임자 아렐리스 아고스토는 "우리는 여전히 테마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한다"고 말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파괴적 혁신'을 약속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캐시 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ETF( ARKK.P)는 2024년에 26억 달러가 유출되어 테마형 ETF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출되었다. 이 펀드는 올해 9% 이상 하락했다.

테마 펀드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테마형 ETF의 수수료는 투자금의 평균 0.62%로, 평균 ETF 수수료 0.49%보다 높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투자자는 스테이트스트리트 S&P 500 ETF에는 0.09%,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코어 S&P 500 ETF( IVV.P)에는 0.03%를 지불한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3년 39개였던 테마 펀드 출시 건수는 올해 13개로 줄었고, 2024년 테마 펀드 청산은 36개로 이미 2023년 총 32개를 넘어섰다.

테마ETFs는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며 12월 이후 18개의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중에는 나토 회원국 소재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범대서양 방산 ETF NATO.O 와 유럽 럭셔리 ETF FINE.O 가 있다.

크리스토크위악은 "S&P 500 메가캡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 테마 ETF로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프리뷰)-BOJ, 10월 금리 동결 전망..덜 도비시한 전망 신호할 듯

워싱턴, 10월25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30-31일 회의에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투기 세력이 엔화를 너무 많이 끌어내리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덜 도비시한 정책 전망을 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BOJ는 금리를 최저 수준에서 계속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7월 금리 인상이 시장 폭락을 촉발했다는 비난을 받아 매파적인 메시지를 줄이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더 나아가 중단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애널리스트들은 BOJ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덜 도비시한 스탠스를 보인다면 다음 인상 타이밍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또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가 추가적으로 저점을 테스트하고 연료 및 식품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소비에 타격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 수석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엔화가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BOJ는 너무 도비시하게 보이는 메시지를 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31일에 끝나는 이틀 간의 회의에서 BOJ는 단기 금리를 0.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후 발표될 분기 보고서에서도 2027년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데이터는 임금 상승과 지속적인 임금 상승 전망이 소비를 뒷받침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BOJ의 견해를 대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BOJ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내년에도 임금을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많은 기업이 아직 비용 상승을 완전히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BOJ는 임금 및 물가 측면의 진전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추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강조할 수 있다.

### ◆ 적절한 균형 유지

그러나 우에다 총재가 불안정한 시장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하는 주요 이유로 강조한 만큼 시장은 BOJ의 리스크에 대한 견해에 더 집중할 것이다.

우에다 총재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주요 경제국 대표들을 만난 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24일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이 오래 지

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OJ는 또한 보고서에서 향후 정책 지침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여 힌트를 줄 수 있다.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BOJ는 경제 및 물가 상황이 예측대로 움직일 경우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위원회는 리스크에 대한 추가 문구 또는 정책 전환의 트리거를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BOJ는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7월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 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우에다 총재는 경제가 예측대로 움직이면 BOJ가 금리를 계속 인상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의 대다수는 BOJ가 올해 인상을 포기할 것으로 보았지만 대부분 3월까지 는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목요일 IMF는 BOJ의 7월 금리 인상을 환영하며 BOJ에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재개로 BOJ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을 혼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지만 너무 도비시하게 들리면 투기세력이 엔을 매도할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우에다 총재도 인정한 딜레마이다.

우에다 총재는 23일 IMF 패널에서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일반적으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금리가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하면 투기적 포지션이 크게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